

장흥군, 국내 최대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솔리스장흥과 관련 업무협약
대덕읍 400MW급 태양광 설비
6만평 스마트팜 단지 조성 추진
수익 일부 주민 ‘햇빛연금’ 구조

전라남도 장흥군이 7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관내 염해 간척지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15일 장흥군은 최근 ㈜솔리스장흥과 국내 최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성 장흥군수를 비롯해 주식회사 솔리스장흥, 한국수력원자력, LS일렉트릭, 한화솔루션, 다스코, BS한양 등 주요 컨소시엄 참여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은 대덕읍 가학리, 회진면 진목리 일원 약 90만평 규모의 염해간척지에 국내 최대 규모인 400MW급 태양광 발전설비와 6만평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

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총 사업비는 약 7006억원이며, 장흥군은 민·관 협력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발전사업의 수익 일부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이른바 ‘햇빛연금’ 구조로 진행된다. 지역 주민들은 수익 배분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군은 이를 통해 주민 참여도와 지역 수용성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흥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집적화단지 조성 신청 및 관련 인허가 절차를 ㈜솔리스장흥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주민공청회 및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군민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



지난 12일 장흥군이 ㈜솔리스장흥과 국내 최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흥군 제공

지 집적화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병훈 주식회사 솔리스장흥 대표는 “에너지 산업의 혁신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풍력, 태양광,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합 운영하고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에너지 타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흥=김전환 기자

보성군, 열대거세미나방 방제 당부 정밀 예찰 등 적기 대응 중요

전라남도 보성군이 옥수수 등 주요 화본과 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열대거세미나방의 성충이 관내에서 올해 처음 발견됨에 따라 옥수수 재배 농가에 적기 방제 및 정밀 예찰을 당부했다.

15일 보성군에 따르면 ‘열대거세미나방’은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비래 해충으로, 지난 4월21일 제주도에서 처음 확인됐으며, 보성군에서는 지난 달 28일 첫 성충이 발견됐다.

열대거세미나방 유충은 옥수수와 수수, 벼 등 화본과 작물의 잎과 줄기를 갉아먹고, 열매 안으로 파고 들어가 작물의 생육을 저해해 상품성 및 수확량 감소 등 피해를 유발한다. 이에 보성군은 옥수수 주산지인 득량면과 회천면에 페로몬 트랩을 설치하고 지난달부터 매주 1회 정기 예찰 및 방제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보성=양중수 기자

여수시, ‘시책 일몰제’ 추진 10억6천만원 재정절감 기대

전라남도 여수시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행정 효율성 제고와 예산 절감을 위해 ‘시책 일몰제’ 추진에 나섰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책일몰제는 예산 또는 비예산 시책 가운데 정책 환경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실효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자체진단을 통해 과감히 폐지·보완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국가산단 불황에 따른 시 재정여건 악화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와 관련, 행정·재정적 조직역량 결집을 위한 시의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조치로 약 10억6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전 부서의 시책·제도·행사 등의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소관부서 자체평가와 11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27개 사업을 일몰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일몰이 확정된 주요 사업으로는 △시정제안 및 견문보고 우수직원 포상금△365 아일랜드 청년 유람단 △작은 다문화학교 운영 등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지난 11일 순천시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에서 순천인안초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손모내기 체험행사를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손모내기 체험 행사 개최

전라남도 순천시가 지난 11일 순천만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에서 순천인안초등학교와 비봉유치원이 참여한 손모내기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15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순

천시와 순천인안초등학교가 매년 추진하는 흑두루미 서식지 보전 실천 프로그램으로, 농업·농촌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 운영됐다.

순천=배서준 기자

한수공 ‘제2회 주암댐 주민 자원순환 페스티벌’ 성료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주암댐지사는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지난 12일 ‘제2회 주암댐 주민 자원순환 페스티벌’을 주암 전통시장에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자원순환 페스티벌에서는 유관기관, 지역업체, 주민단체 등 14개 기관이 자원순환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자원순환 문화의 확산과 재활용 놀이터의 확대 운영에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자원재활용 체험, 업사이클링 전시, 주민 참여형 캠페인(자원모아 챌린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으며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이 폐자원을 활용해 직접 제작하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주암댐지사는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지난 12일 주암 전통시장에서 ‘제2회 주암댐 주민 자원순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주암댐지사 제공

전시한 재활용 공예품 및 미술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유재일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는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문화의 확산을

위해 순천시, 순천YMCA,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지역 주민단체 등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무료 운영 9월까지 서핑 등 8개 종목

전라남도 여수시가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과 함께 오는 9월7일까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체험 종목은 윈드서핑과 카약, 카누, 스킨스쿠버, 스노클링, 수상자전거, 당기요트, 크루저요트 등 8개 종목으로 전문 강사의 교육(안전과 이론·장비 등)과 함께 체험이 진행된다. 여수요트학교와 해양레저스쿨, 스킨스쿠버교실 3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체험 장소는 소호요트마리나(여수요트학교)와 웅천해수욕장(해양레저스쿨·스킨스쿠버교실), 여수세계박람회장(해양레저스쿨) 등 3개소이다.

참가 신청은 여수시 OK통합예약과 전화예약, 당일 현장접수로 진행되며 사전예약은 체험일 기준 일주일 전부터 가능하다. 프로그램별 체험 장소와 예약 방법, 연령 제한이 상이해 반드시 여수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강습료와 장비 대여료는 모두 무료이며, 편의시설(샤워장·물품 보관함) 사용료는 여수시민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면 할인된다. 체험 참가자는 물빠짐이 좋은 옷과 아쿠아슈즈, 모자, 선크림, 여벌 옷 등을 준비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 및 예약은 여수요트학교(여수공공스포츠클럽 061-685-8220), 해양레저스쿨(한국해양소년단 웅천 061-686-0591·박람회장 070-8837-1004), 스킨스쿠버교실(한국해양구조협회 061-641-0122)로 연락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체류형 관광 ‘순천일기’ 참가 모집 순천시, 1일 10만원 경비 지원

전라남도 순천시는 지역의 일상과 감성을 체험하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2025 순천일기’ 참가자를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순천일기’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여행자가 일정 기간 순천에 머물며 지역의 숨은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콘텐츠로 제작·공유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는 7~10일간 순천에 체류하면서 관광지, 전통시장, 지역 축제 등 다양한 자원을 경험하고 SNS, 블로그, 영상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그 여정을 소개하게 된다.

올해 프로그램은 ‘순천마을스테이’ 사업과 연계해 참가자가 마을호스트로 선정된 숙소에서 머무르며 해당 숙소에서 운영하는 로컬 체험 프로그램 및 마을 투어 등에 참여하도록 구성된다.

이를 통해 참가자는 순천의 일상과 문화를 더욱 밀도 있게 체험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전라남도 외 거주자 중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총 15팀 이내(약 30명 규모)를 선정한다.

선정자는 △순천 대표 관광지 및 축제 참여 △전통시장 방문 △마을호스트 프로그램 참여 △콘텐츠 업로드 등 지정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참가 신청은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시는 참가자에게 숙박비, 식비, 체험비 등 실비성 경비를 1인당 1일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관광과(061-749-581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